

올 '에이스 페어' 역대 최대 규모 개최

9월 21일부터 나흘간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

채용박람회와 동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17 광주 에이스 페어(Asia Content & Entertainment Fair in Gwangju)' 오는 9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치러진다. 특히 올해 에이스 페어는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개채용 박람회도 곁들여 저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스 페어 추진위원회는 최근 광주 김

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열어 '2017 광주 에이스 페어'를 오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하고 전시의 세부 계획 등을 협의,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센터 등이 주관하는 '2017년 광주 에이스 페어'는 전시 품목과 참가업체 및 바이어 규모 등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기존의 방송, 영상, 게임, VR,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라이선싱 가능 전 품목에 '문화콘텐츠 잡 페어(JOB FAIR)'와

'2017 광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을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직업방송이 진행하게 될 '문화콘텐츠 잡 페어'는 일자리를 꿈꾸는 구직자들에게 기업의 인제상, 기업의 종류, 취업의 기술, 창업의 기술, 업계의 정보 등을 비롯해 글로벌 취업 정보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까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개최했던 광주 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을 올해 광주 에이스 페어와 동시 개최하게 되면서 문화행사로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열 받을 땀 산으로 광주시와 광주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최근 보성 제암산 일대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긍정 마인드 UP 스트레스 DOWN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광주시 제공>

약취 배출 공장 24곳 점검

광주시, 오늘부터 나흘간

광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합동으로 26일부터 4일간 관내 약취배출사업장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서구, 남구, 광산구가 합동으로 3개반 10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약취를 배출하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16곳과 산업단지 외부 8곳 등 총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내 약취배출 시설 확인 ▲약취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확인 ▲사업장내 배출구 및 부지경계선에서의 약취 발생 여부 등이다. 필요한 경우 약취를 포집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약취오염도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검사 결과 약취방지에 따른 약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권고하고, 이후에도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시 '발코니 태양광 발전소' 선착순 지원

자부담 17만원

때 이른 폭염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정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동주택 '발코니형 미니 태양광 햇빛발전소' 보급 사업 문의가 늘고 있다.

'발코니형 미니 태양광발전소'의 총 설치비용은 73만~75만원 가량이다. 이 가운데 국비(18만원)와 시비(40만원)가 총 58만원 지원돼 참여세대는 17만원 상당만 부담하면 된다. 적은 비용 부담으로 250W~260W 규모의 소형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발코니형 미니 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 패널 ▲발코니 고정장치 ▲마이크로 인버터로 구성이 간단하다. 플러그를 가정내 콘센트에 꽂아놓기만 하면 전력이 생산돼 가전제품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가정에 설치한 경우 한 달에 30kWh 내외의 전기가 생산된다. 이는 대형냉장고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월 6000~8000원의 전기요금이 절약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3~5년을 사용하면 자부담 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16년 말부터 전기요금 적용단계가 3단계로 축소되면서 400kWh 전후 단계 기본 요금은 약 5700원 차이가 발생. 발코니형 태양광을 설치하면 더 많은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201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가정 전기요금 누진 제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발코니형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올해는 1억8800만원(국비 4300만원, 시비 1억원, 자부담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총 250세대에 보급하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까지 120세대가 신청했으며 시는 예산 소요 시까지 선착순 지원할 방침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에서 선정된 전문 시공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내년 남도학숙 입사 문턱 낮아진다

신입생 성적평가 폐지

저소득층 가정부문 확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의 입사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광주시는 서울 대방동 소재 남도학숙의 입사 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입사자 선발 시 신입생 성적평가를 폐지하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사문턱도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입생은 고등학교 성적평가가 폐지되고 재학생은 대학교 성적 반영 비율을 50%에서 30%로 대폭 축소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범위도 현재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5개 분야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족, 아동복지시설 보호학생, 북한이탈주민, 특별재난지역주민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가점이 부여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 제2남도학숙 개편으로 입사자 604명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배려대상자 등부터 입사 문턱을 선제적으로 낮추기 위해 시민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남도학숙 입사기준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했다.

TF팀은 남도학숙 입사 및 입사대기 학생, 시민단체, 전문가, 시·도 공무원 총 8명으로 구성,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입사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대한 전남지역 시·군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21일 최종안이 결정됐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남도학숙 입사기준을 매년 개선하고 있다. 2016년도 신입생은 수능6등급 이상 성적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2017년도에는 재학생 B학점 이상 성적기준도 폐지하고, 지원자격은 그동안 서울시 소재 4년제 대학교로만 제한했던 것을 수도권(경기·인천 포함) 2년제 대학 이상으로 확대 ▲신입생 선발 평가배점을 학업성적 60점, 생활정도 40점에서 학업성적 50점, 생활정도 50점으로 조정해 성적 반영 비율은 낮추고 생활 정도의 배점 비율은 높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노년 복지 혜택 아는 만큼 챙긴다" ...광주복지재단 교육

시민활동가 22명 강사 파견

광주복지재단이 어르신들이 알아야 할 복지제도와 현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재단법인 광주복지재단은 최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노년층이 알아두어야 할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에 큰 호응을 보였다. 교육이 끝난 뒤에도 강사에게 쏟아지는 질문들을 통해 어르신들이 복지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광주복지재단은 최근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찾아가는 복지교육'을 실시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와 복지서비스는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로, 이는 수급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도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복지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을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2017년 올해는 시민복지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복지제도 알리미'이라는 시민활동가 22명을 양성하고 이들을 강사로

파견하여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제도 알리미는 지난 4월부터 두달간 양성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제도와 강의 스킬을 익히며, 시민복지교육의 강사로 활동할 준비를 마쳤다.

교육기간은 6월~11월이며, 복지제도가 궁금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교육 주제는 ▲퇴직자·노년층을 위한 복지 ▲알아두면 든든한 사회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이다.

복지재단 장현 대표이사는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복지정보를 알고 꼭 필요한 복지를 누릴 수 있기를 적극적으 활동해 달라."며 복지제도 알리미에 당부의 말을 전했다.

찾아가는 시민복지교육에 대해 궁금한 점은 광주복지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시민복지교육 담당자(062-603-8343)에게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윤달 시작...영락공원 화장로 2기 추가

광주시는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대비해 국·시비 16억원을 들여 화장로를 9기에서 11기로 증설하는 공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로써 화장수용능력이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하게 됐다.

이번 증설로 유족들이 선호하는 오전 시간대에 더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

게 됐으며, 특히 6월24일부터 7월22일까지 2~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을 맞아 가장 유골에 대한 화장수요 급증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광주 영락공원은 윤달 기간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시간을 당초보다 1시간 앞당겨 오전 7시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에년 이 시기에는 하루 가장유골 화장건수가 1~2건이었으나 윤달은 개장이나 화장을 해도 무탈하다는 관습 때문에 가장 유골 화장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화장로 11기 중 화장로 3기는 가장유골 화장만을 위해 가동하고, 이후에 시신 화장이 마무리되면 화장로 8기를 가장유골 화장에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H. 010-6838-1230

지리산, 온천지구내 호텔급 - 모텔

- 전남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하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세미나실/노래방/객실, 2~4층 - 객실
- 전체 리모델링, 7월3일 오픈예정,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연수원, 수련원, 요양원 등 기타시설 이용가능
- 시세/감정가 - 17억
- 매매 - 15억 5천만원 (조정가능)
- 용자 8-10억 가능, 법인체 인수 가능

산수유/벚꽃축제, 전지훈련,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4개월)영업으로 순수익 3억 가능!

주인직매 H. 010-3605-5000

